

대구지역 주부들의 농산물과 가공식품 소비에 관한 인식

윤진숙[†] · 문광덕* · 이호철**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경북대학교 식품가공학과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A Study on the Consumer Perception of Housewives Living in Taegu Area for Farm Products and Processed Foods

Jin-Sook Yoon[†], Kwang-Deog Moon* and Hochol Lee**

Dept. of Food and Nutrition, Keimyung University, Taegu 704-701, Korea

*Dep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702-701, Korea

Abstract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sumer perception of farm products and processed foods, and to figure out the future direction of food supply system to satisfy the consumer need. From the citizens in Taegu area, 532 housewives were selected as sample subjects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 procedure. The main criteria of consumers for purchasing farm products was quality and the main reason for purchasing imported products was cheap price(48.9%). Most of consumers(87%) thought that food safety of farm products was not belong to safe level. Consumers(79.7%) perceived that the labeling system for the place of origin and for the quality are necessary, but they did not have confidence in the current label. Nearly all the subjects(93.6%) were concerned about the hazardness of residual chemicals of imported products, desired the rigorous inspection system for imported products. Consumers in Taegu area had confidence in processed foods in the following order; farmer-brand-product(0.9%), government-authorized farm product(30.0%) and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product(26.4%). However, only 73.6% of the consumers had the experience to purchase farmers' processed foods. As a conclusion, it appeared that nutrition education for consumers on food-decision making is strongly required for the substantial segment of population who are still ignorant of safety of imported product and food distribution system.

Key words: consumer perception, food choice, quality labeling system

서론

최근 30년간 공업화 위주로 진행되었던 경제성장의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양식은 물론 식품수급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민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을 기준으로 보면 채소 및 과일류, 우유류, 어패류, 육류 등의 공급은 증가한 반면, 곡류 및 서류의 공급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1). 한편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비교하여도 쌀, 보리, 서류의 소비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축산물의 경우 우유 156배, 닭고기 11배, 쇠고기 6배 정도로 소비가 급증하여 식품공급과 유사한 패턴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식품공급량의 변화는 일차적으로는 국민들의 수요변화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국민소득증대, 산업기술의 발달, 국가 식량정책의 변화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2).

특히 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면서 국내산 제품에 비해 저렴한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은 국민 식생활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여 농가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들 수입농산물의 대중화는 식량의 자급도를 낮추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가격의 독점화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폭등사태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는 것

[†]To whom all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요청되고 있다(3).

또한 이러한 수입농산물은 저장 및 수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소비자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비교적 최근에 소비자 보호 및 우리 농산물의 유통 안정을 위하여 생산지, 품종, 규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지 않도록 품질인증제, 원산지 표시제 등이 마련되었지만 아직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식품영양 표시제도 역시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영양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공식품을 선택하고 있다(4).

따라서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과 그 생산능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식품선택과정에서 가격과는 다른 결정요인인 맛, 품질, 편이성,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수입산 쇠고기로부터 O-157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 이후 수입고기의 소비가 격감되었던 것은 식품선택에서 안전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한편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식품의 선택에서도 편의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빠른 속도로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2,5), 농촌에서도 침체된 농민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고부가가치의 가공식품으로 개발하는 작업이 지역단위로 시도되고 있다(6). 그러나 이러한 「농민형 가공식품」 개발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가공식품의 품목을 선정하고 개발하기에 앞서 소비자들의 식품선택과정이나 식품에 대한 제반인식, 식품에 대한 선호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식품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나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올바른 식품선택에 필요한 소비자 영양교육 방향을 세우는데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선택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7-19). 서울과 충청도 대도시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인식, 소비실태 등에 관해 보고(7,8)된 바 있으며,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9,10), 무공해식품의 소비행동에 관한 실태조사들(11,12)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대구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는 식품의 불만족 요인(13,20)과 수입개방과 관련한 농산물 소비의식을 검토한 연구들(14)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식품소비실태를 소비자와 생

산자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저자들은 농민형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소비자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농산물과 가공식품 소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농산물 소비를 위하여 소비자들이 과연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제공받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시기

대구시 전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구시의 6개구에서 층화추출법에 의해 선발된 606명을 대상으로 1996년 4월 한달동안 조사하였으며 그 중 완전한 응답을 한 532명의 조사결과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특히 소비행위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을 중시하여, 대구시민의 소득계층을 임의적으로 4계층으로 나누어 8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 81~120만원을 '중하소득층', 121~200만원을 '중상소득층' 그리고 201만원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방법

이 조사연구는 층화추출법에 의해 선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되 설문지를 바탕으로 훈련된 조사가원이 조사하는 설문지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유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인식, 원산지 표시제와 품질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의식, 「농민형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가공식품 소비의 개선방향 등을 포함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자료의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AS/PC program(version 6.04)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별 응답자수의 백분율을 구하였고, 소득수준별 가공식품 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계산한 후 χ^2 -test 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조사에 참여하였던 대상자들의 연령, 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Group	Responses	Percentage
Age(years)	10~19	1	0.2
	20~29	3	0.6
	30~39	191	35.9
	40~49	291	54.7
	50~59	22	4.1
	60~69	1	0.2
	No answer	23	4.3
Education	Primary school	36	6.8
	Middle school	129	24.2
	High school	280	52.6
	College	87	16.4
Income (10,000won)	≤100	63	11.8
	100~150	232	43.6
	150~200	187	35.2
	≥201	50	9.4
Type of residence	Apartment style	246	46.3
	Korean style	93	17.5
	Western style	187	35.2
	No answer	6	1.1
Occupation of husband	Clerk	50	9.4
	Laborer	150	28.2
	Business	34	6.4
	Officer	69	13.0
	Professional	14	2.6
	Shop owner	151	28.4
	Farmer	2	0.4
No answer	62	11.7	

육수준, 소득분포, 주거형태 및 세대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5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30~39세가 35.9%였다.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절반가량이 고졸이었으며 중졸, 대졸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소득수준은 80~120만원이 43.6%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121~200만원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세대주 직업으로는 자영업 종사자와 노무직 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비슷한 시기에 타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고소득층과 고학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농산물 구매 기준과 농산물 전반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Table 2에서 농산물 구입시의 우선적인 기준에 대해 60%의 소비자들은 품질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국산인지 수입농산물인지’(18.2%), ‘건강에 좋아야 한다’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현 등(8)의 연구에서도 농산물 구매시에 주부들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고하였던 것으로 볼 때 생산지는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매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가격이 싸야’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매시에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심리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드러내기를 기피하려는 소비자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추측된다(13). 이러한 소비성향은 소득수준별로 나눌 때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층은 품질적 요인을 중시하는 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는 가격요인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었다. 주부의 채소 소비 행동을 조사한 강 등(15)의 연구에서도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

Table 2. Decision-making criteria for farm products and perception on the safety

No.(%)

Categories	Income(10,000won)				Total	
	≤80	81~120	121~200	≥201		
Decision making criteria	Cost	11(17.5)	219(8.2)	3(6.9)	1(2.0)	44(8.3)
	Quality(freshness, taste)	27(42.9)	143(61.6)	118(63.1)	31(62.0)	319(60.0)
	Imported or domestic	8(12.7)	47(20.3)	33(17.7)	9(18.0)	97(18.2)
	Health benefit	7(11.1)	11(2.1)	16(8.6)	4(8.0)	38(7.1)
	Convenience to purchase	10(15.9)	10(4.3)	6(3.2)	3(6.0)	29(5.5)
	No answer	0(0.0)	2(0.9)	1(0.5)	2(4.0)	5(0.9)
	$\chi^2=38.96$	$p=0.001$				
Safety of farm products	Yes	11(17.5)	28(12.1)	21(11.2)	9(18.0)	69(13.0)
	Marginal	41(65.1)	164(70.7)	138(73.8)	36(72.0)	379(71.2)
	No	11(17.5)	38(16.4)	28(15.0)	5(10.0)	82(15.4)
	No answer	0(0.0)	2(0.9)	0(0.0)	0(0.0)	2(0.4)
	$\chi^2=6.93$	$p=0.645$				

'기존 농산물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보통이다'는 응답이 70%정도,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안전하다'는 13%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기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볼 때,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85.7%의 소비자가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유기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유기 농산물은 화학 투입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고 인식되고 있다(21). Table 3은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농산물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이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유기농산물은 건강에 좋다(6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30.5%에

이르렀다. 이것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편이었다. 한편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7.3%, '믿을 수 없다'는 30%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기농산물의 품질에 대하여 불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품질이 동일할 경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를 물었을 때 국내산의 가격이 수입산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우리 것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지만 가격이 비싸면 수입산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3.4%로 나타났다. 즉 가격조건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소득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남궁(12)에 의하면 서울 지역 주부들의 경우 무공해 식품의 구매시에는 위생상태, 신선도, 영양가, 안전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가격과 맛도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다고 한다. Jolly 등(22)의 연구에 의하면 유기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의 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안전성이었고 그 다음이 영양가, 맛의 순이었다고 한다.

Table 3. Perception on the safety of organic farm products and imported produce

No.(%)

	Responses	Income(10,000won)			Total	
		≤ 80	81~120	121~200		≥ 201
Health promotion effect of organic farm products	Yes	43(68.3)	153(65.0)	123(65.8)	38(76.0)	357(67.1)
	No	18(28.6)	71(30.6)	58(31.0)	12(24.0)	159(29.9)
	No answer	2(3.2)	8(3.5)	6(3.2)	0(0.0)	16(3.0)
		$\chi^2=3.12$	$p=0.794$			
Quality of organic farm products	Reliable	45(71.4)	155(66.8)	124(66.3)	32(64.0)	356(66.9)
	Unreliable	16(25.4)	70(30.2)	62(33.2)	18(36.0)	166(31.2)
	No answer	2(3.2)	7(3.0)	1(0.5)	0(0.0)	10(1.9)
		$\chi^2=6.521$	$p=0.367$			
Which do you purchase if domestic products costs more at the same quality	Imported	34(54.0)	130(56.0)	94(50.3)	26(52.0)	284(53.4)
	Domestic	27(42.9)	96(41.4)	90(48.1)	22(44.0)	235(44.2)
	No answer	2(3.2)	6(2.6)	3(1.6)	2(4.0)	13(2.4)
		$\chi^2=2.957$	$p=0.814$			
Which do you purchase if domestic products costs less at the same quality	Imported	2(3.2)	9(3.9)	7(3.7)	1(2.0)	19(3.6)
	Domestic	58(92.1)	219(94.4)	178(95.2)	49(98.0)	504(94.7)
	No answer	3(4.8)	4(1.7)	2(1.1)	0(0.0)	9(1.7)
		$\chi^2=5.347$	$p=0.500$			
Reasons for purchasing imported processed foods	Unavailability of domestic products	3(4.8)	55(23.7)	50(26.7)	10(20.0)	118(22.2)
	Cheaper price	36(57.1)	117(50.4)	84(44.9)	23(46.0)	260(48.9)
	Higher Quality	4(6.4)	12(5.2)	8(4.3)	3(6.0)	27(5.1)
	Curiosity	6(9.5)	21(9.1)	19(10.2)	6(12.0)	52(9.8)
	No experience	12(19.1)	27(11.6)	20(10.7)	5(10.0)	64(12.0)
No answer	2(3.2)	0(0.0)	6(3.2)	3(6.0)	11(2.1)	
		$\chi^2=26.48$	$p=0.033$			

따라서 이들을 종합해 볼 때 대구지역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의 품질에 대해 신뢰도가 낮으며 인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하겠다.

한편, 수입농산물 가공식품의 구입동기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내 농산물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48.9%)’,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22.2%)’, ‘구입한 적이 없다(12.0%)’ 그리고 ‘호기심에서 구입(9.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소득수준별로 볼 때, 저소득층에서 ‘국내 농산물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하는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p < 0.05$).

원산지표시제와 품질인증제에 대한 인식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그 생산국가와 생산지역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농산물 무역 내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 6월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세계무역에서의 필수요건이며, 이는 ‘상품의 차별화 및 품질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경제학적인 독점적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4).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얼마나 지키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Table 4는 이러한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소비자가 제

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결과이다. ‘구입한 농산물이 어떻게 수입농산물인 줄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보고 알았다(62.4%)’, ‘파는 상인이 말해 주어서(10.7%)’, ‘그냥 보고 안다(11.1%)’,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어서(8.1%)’ 등으로 답하였다. 한편, 소득계층별로 분석해 볼 때 원산지 표시를 보고 수입농산물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응답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많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어서’ 수입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른 소득계층의 경우보다 많았다. ‘파는 상인이 말해 주어서’ 수입농산물인 줄 알았다는 응답과 ‘그냥 보고 안다’는 응답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나타났음을 종합해 볼 때 대구지역 소비자들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의식은 여전히 막연한 수준에 놓여있으며, 그런 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는 걸돌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79.9%)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볼 때 소득이 낮을수록 이러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

Table 4. Consumer perception for food labeling system for the origin No.(%)

Responses	Income(10,000won)				Total	
	≤80	81~120	121~200	≥201		
How did you find out you purchased imported farm products?	From experience	6(9.5)	30(12.9)	19(10.2)	4(8.0)	59(11.1)
	Food labeling for the origin	35(55.6)	142(61.2)	118(63.1)	37(74.0)	332(62.4)
	Merchants	7(11.1)	28(12.1)	16(8.6)	6(12.0)	57(10.7)
	Mass-media	5(7.9)	13(5.6)	16(8.6)	2(4.0)	36(6.8)
	Not domestic products	9(14.3)	18(7.8)	15(8.0)	1(2.0)	43(8.1)
No answer	1(1.6)	1(0.4)	3(1.6)	0(0.0)	5(0.9)	
		$x^2=18.439$	$p=0.005$			
When you purchase farm products, do you find out the origin?	Yes	39(61.9)	184(79.3)	158(84.5)	44(88.0)	425(79.9)
	No	22(34.9)	45(19.4)	28(15.0)	5(10.0)	100(18.8)
	No answer	2(3.2)	3(1.3)	1(0.5)	1(2.0)	7(1.3)
		$x^2=18.439$	$p=0.005$			
Effectiveness of food labeling system to distinguish imported products	Yes	42(66.7)	182(78.5)	158(84.5)	42(84.0)	424(79.7)
	No	19(30.2)	45(19.4)	26(13.9)	7(14.0)	97(18.2)
	No answer	2(3.2)	5(2.2)	3(1.6)	1(2.0)	11(2.1)
		$x^2=10.12$	$p=0.12$			
Do you trust the food label of origin?	Yes	30(47.6)	144(62.1)	116(62.0)	33(66.0)	323(60.7)
	No	31(49.2)	83(35.8)	66(35.3)	16(32.0)	196(36.8)
	No answer	2(3.2)	5(2.2)	5(2.7)	1(2.0)	13(2.4)
		$x^2=5.556$	$p=0.475$			

아졌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아직도 원산지 표시제는 완전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많은 소비자들에 의해 이 제도가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의 실제 효과를 파악하고자 '원산지 표시제가 수입농산물 구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제가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구별에 도움이 된다(79.7%)고 응답함으로써 이 제도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원산지 표시의 기재내용에 대해서 약 60%의 소비자들만이 이를 '믿는다'고 답변함으로써 아직까지 상당수의 소비자가 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다른 소득계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원산지 표시에 기재된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에서 원산지 표시의 기재내용에 대한 불만이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모두 정리해 볼 때, 원산지 표시제의 실시와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제도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그 속에 기재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비자들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인증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과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199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기관이 생산자, 산지, 품종, 품위,

규격 등을 확인하고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승인하며, 그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허위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행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4).

Table 5에서 '농산물을 구입시 품질인증 표시를 확인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확인한다'는 소비자는 59%에 불과하였으며, '확인하지 않는다'는 37%였다. 이것은 품질인증제가 아직도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계층별로 분석해 보면, 품질인증 표시를 가장 많이 확인하는 소득계층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품질인증 표시를 가장 확인하지 않는 계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었다. 한편 이러한 품질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필요하다(88.3%)'고 답변하였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소득이 높은 층에서 이러한 품질인증제의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도 94%의 소비자가 품질인증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품질인증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66%에 불과하였다.

품질인증 표시의 기재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고자 설문한 결과, 부착된 품질인증 표시에 대해 '신뢰한다'고 한 소비자가 57.1%였으며, '믿지 않는다'고 한 소비자가 38.4%였다. 이러한 비율은 소비자가 품질인증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으나, 품질인증 표시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소비자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소득계층별로 분석해 볼 때, 품질인증 표시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계층은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의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향상과 산업화 · 도시화

Table 5. Consumer opinion on the quality labeling system No.(%)

Responses	Income(10,000won)				Total	
	≤80	81~120	121~200	≥201		
When you purchase produce, do you check up the quality label?	Yes	38(60.3)	130(56.0)	113(60.4)	33(66.0)	314(59.0)
	No	24(38.1)	95(41.0)	61(32.6)	16(32.0)	196(36.8)
	No answer	1(1.6)	7(3.0)	13(7.0)	1(2.0)	22(4.1)
		$\chi^2=8.98$	$p=0.174$			
Do you think the quality labeling system is necessary?	Yes	56(88.9)	209(90.1)	163(87.2)	47(94.0)	475(89.3)
	No	4(6.4)	16(6.9)	9(4.8)	1(2.0)	30(5.6)
	No answer	3(4.8)	7(3.0)	15(8.0)	2(4.0)	27(5.1)
		$\chi^2=7.604$	$p=0.269$			
Do you trust the quality guaranteed mark?	Yes	31(49.2)	137(59.1)	107(57.2)	29(58.0)	304(57.1)
	No	30(47.6)	88(37.9)	67(35.8)	19(38.0)	204(38.4)
	No answer	2(3.2)	7(3.0)	13(7.0)	2(4.0)	24(4.5)
		$\chi^2=6.478$	$p=0.372$			

의 급속한 진전 때문에 가공식품의 경우 급속하게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1993년 현재 8.7조억원으로서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비중은 무려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해마다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6).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의 질적 고도화는 유통구조의 혁신과 소비자들의 고급화, 다양화,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욕구에 기인한 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5).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형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전의 가공식품 소비형태와 현재의 그것을 비교하였을 때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었다'고 답한 소비자는 50%를 상회하였는데 비해 '줄었다'는 23.7%에 불과하여 소비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91.5%)의 소비자들이 그 제조년월일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소득 수준별 차이는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71.4%)은 농산물 가공식품이 몸에 좋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몸에 좋을 것'이라고 답변한 소비자들은 2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는 특

히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매우 낮았다.

최근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송과정에서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 수확후 처리(post-harvest)를 위한 방부제 및 농약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높다(4).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입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Table 6을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철저한 검역을 해야 한다(94.6%)고 답함으로써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계층별로 나누어 볼 때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검역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사정은 식품검역 문제에 대한 견해가 소득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들여온 가공식품 원료의 잔류농약피해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93.6%)은 농약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수입산 가공식품 원료'의 잔류농약피해에 대해 '괜찮다'고 답변한 소비자들은 전체의 5% 미만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수입 원료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 주었다. 현 등(8)의 연

Table 6. Consumer perception on the processed foods

No.(%)

Responses	Income(10,000won)				Total	
	≤80	81~120	121~200	≥201		
Do you feel that consumption pattern of processed foods is increased?	Yes	30(47.6)	131(56.5)	104(55.6)	28(56.0)	293(55.1)
	The same	15(23.8)	49(21.1)	40(21.4)	8(16.0)	112(21.1)
	No	18(28.6)	51(22.0)	43(23.0)	14(28.0)	126(23.7)
	No answer	0(0.0)	1(0.4)	0(0.0)	0(0.0)	1(0.2)
		$\chi^2=4.222$	$p=0.896$			
Do you check up the manufacturer date, when you purchase?	Yes	56(88.9)	213(91.8)	172(92.0)	46(92.0)	487(91.5)
	No	5(7.9)	18(7.8)	13(7.0)	4(8.0)	40(7.5)
	No answer	2(3.2)	1(0.4)	2(1.1)	0(0.0)	5(0.9)
		$\chi^2=4.673$	$p=0.586$			
Health promotion effect of processed foods	No	40(63.5)	171(73.7)	131(70.1)	38(76.0)	380(71.4)
	Yes	20(31.8)	58(25.0)	54(28.9)	12(24.0)	144(27.1)
	No answer	3(4.8)	3(1.3)	2(1.1)	0(0.0)	8(1.5)
		$\chi^2=7.698$	$p=0.261$			
Opinion on imported farm products	Need rigorous inspection	56(88.9)	219(94.4)	179(95.7)	49(98.0)	503(94.6)
	Do not care	6(9.5)	9(3.9)	7(3.7)	1(2.0)	23(4.3)
	No answer	1(1.6)	4(1.7)	1(0.5)	0(0.0)	6(1.1)
		$\chi^2=7.117$	$p=0.310$			
Opinion on the chemical hazardness of imported farm products	Safe	5(7.9)	7(3.0)	9(4.8)	5(10.0)	26(4.9)
	Serious	55(87.3)	223(96.1)	175(93.6)	45(90.0)	498(93.6)
	No answer	3(4.8)	2(0.9)	3(1.5)	0(0.0)	8(1.5)
		$\chi^2=14.667$	$p=0.101$			

Table 7. Consumer opinion on the reliability of processed food products

N(%)

Responses	Income(10,000won)				Total	
	≤80	81~120	121~200	≥201		
Opinion on the most reliable processed foods	Foreign big companies' products	0(0.0)	3(1.3)	2(1.1)	1(2.0)	6(1.1)
	Domestic big companies' products	2(3.2)	23(9.9)	13(7.0)	3(6.0)	41(7.7)
	Farmer's cooperative association products	13(20.6)	70(30.2)	46(24.6)	13(26.0)	142(26.7)
	Farmers' union products	21(33.3)	55(23.7)	69(36.9)	18(36.0)	163(30.6)
	Government authorized farm products	23(36.5)	69(29.7)	54(28.9)	15(30.0)	161(30.3)
	Local market product	1(1.6)	4(1.7)	1(0.5)	0(0.0)	6(1.1)
	No answer	3(4.8)	8(3.5)	2(1.1)	0(0.0)	13(2.4)
		$\chi^2=21.425$	$p=0.259$			
Do you have highest reliability on the big companies' product?	Yes	32(50.8)	103(44.4)	72(38.5)	21(42.0)	228(42.9)
	No	28(44.4)	128(55.2)	113(60.4)	29(58.0)	298(56.0)
	No answer	3(4.8)	1(0.4)	2(1.1)	0(0.0)	6(1.1)
		$\chi^2=13.056$	$p=0.042$			

Table 8. Perception on the farmers-brand processed food products

N(%)

Responses	Income(10,000won)				Total	
	≤80	81~120	121~200	≥201		
Experience of purchasing farmer-brand-processed food products	Yes	38(60.3)	170(73.3)	152(81.3)	39(78.0)	399(75.0)
	No	20(31.8)	45(19.4)	26(13.9)	10(20.0)	101(19.0)
	No answer	5(7.9)	17(7.3)	9(4.8)	1(2.0)	32(6.0)
		$\chi^2=13.783$	$p=0.032$			
Health promotion effect of the farmer-brand-processed food products	Yes	44(69.8)	146(62.9)	109(58.3)	35(70.0)	334(62.8)
	No	16(25.4)	84(36.2)	74(39.6)	15(30.0)	189(35.5)
	No answer	9(4.8)	2(0.9)	4(2.1)	0(0.0)	9(1.7)
		$\chi^2=10.180$	$p=0.117$			

구에서도 수입농산물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86.8%로 나타났던 것으로 볼 때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절대다수의 대구지역 소비자들은 수입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역할 필요가 없다거나' '괜찮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도 비록 소수이지만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Table 7을 보면, 대구지역 주부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가공식품은 '농민단체의 가공식품(30.6%)'과 '정부인가의 농가제품(30.3%)' 그리고 '농협제품(26.7%)'의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기업이 생산한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믿을 만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42.9%로서 절반에 미달하였으며, '믿지 못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소득계

층별로 살펴볼 때 '중상소득계층'에서는 '믿을 만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대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대구지역 주부 소비자들은 '농민단체의 가공식품(30.9%)' '정부인가의 농가제품(30.0%)' '농협제품(26.4%)'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대기업이 생산한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불신 정도도 매우 깊었다.

농민형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농산물 가공식품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품화되어 왔다.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생산자에 의해 가공·판매되는 농민형 가공식품은 현실적으로 판로개척이나 홍보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Table 8은 「농민형 가공식품」을 구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농민형 가공식품을 구입하여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전체의 약 75%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소비자도 약 20%나 되어 대구지역 소비자들은 농민형 가공식품을 보편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농민형 가공식품 소비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상소득층' 이상의 계층에서는 농민형 가공식품을 구입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원료생산자가 직접 제조한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반응을 물었을 때 '건강에 좋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2.8%, '건강에 좋지 않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소비자는 35.5%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농민형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이 비교적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해 보아도 '중상소득층'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다'고 응답하고 있어, 거의 모든 계층이 「농민형 가공식품」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다.

요 약

소비자들이 농산물 소비 특히 가공식품 소비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층화추출법과 설문지법에 의한 조사를 대구지역 주부 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농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기준을 조사해 본 결과, '품질'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구입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보통이다'는 응답(70%)이 많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도 15%에 달하여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은 건강에 좋다(67.1%)'라고 응답하였지만, 그들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기농산물의 품질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었다. 과반수의 소비자들은 '국내 농산물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48.9%)'에 수입 가공식품을 구입하고 있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었다. 원산지 표시제를 신뢰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 제도에 의해 기재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비자들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 품질인증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59%에 불과하여, 품질인증제도 아직 정착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89.3%의 소비자가 품질인증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품질인증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58%에 불과하였다. 소비자들의 가공식품 소비는 5년전에 비하여 '늘었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하였다. 그에 비해 소비자들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91.5%)이 그 제조년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많은 소비자들(71.4%)이 농산물 가공식품이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수입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철저한 검역(94.6%)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수입 가공식품 원료의 농약 피해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의 소비자들(93.6%)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역할 필요가 없다거나' '괜찮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소득계층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구 소비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가공식품으로 '농민단체의 가공식품(30.6%)'과 '정부인가의 농가제품(30.3%)' 그리고 '농협제품(26.7%)'을 꼽고 있었는데 비해, 국내 대기업 제품이나 외국 대기업의 제품은 소비자에게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대기업의 가공식품에 대해 '믿을 만하다'는 응답은 절반에 미달하였다. 그렇지만, 농민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농민형 가공식품」을 구입하여 본 소비자는 약 75%에 불과하여 아직도 「농민형 가공식품」 소비의 보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들 가공식품에 대해 '건강에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농민형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 주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1996년도 교육부 농업과학분야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문 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수급표(1995)
2. 최춘언 : 현대산업사회와 식생활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 213(1995)
3. 황수철 : 농산물수입개방의 배경과 실태,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I, 한국농어촌사회 연구소 편. 연구사(1988)
4. 이호철 : 지역농업의 실증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1996)
5.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대구경북지역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현황과 과제(1995)
6. 한국은행 : 국민계정(1993)
7. 이중희, 오명숙, 손숙미 : 수입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품질특성비교와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개교30주년 기

- 념 전시회 및 심포지엄 발표논문 초록, 성심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1994)
8. 현대선, 김완수 : 일부 도시주부들의 수입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 및 소비실태조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 74(1997)
 9. 이은주, 노승옥, 이철호 :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I).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 475(1996)
 10. 이은주, 노승옥, 이철호 :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II).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 487(1996)
 11. 남궁석, 이혜입, 이정윤, 김만수 : 주부의 무공해식품에 대한 인식, 관심 및 소비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 289(1994)
 12. 남궁석 : 무공해식품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 379(1994)
 13. 주은희, 김민정 : 수입식품에 대한 구매태도와 구매행동 분석. *계명대 과학논집*, 18, 125(1991)
 14. 이호철, 유병규, 김두환 : 농산물 수입개방과 소비자 의식-대구·경북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경북대 농학지*, 9, 71(1991)
 15. 강금지, 정미숙 : 주부의 채소소비형태 및 영양지식에 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 377(1995)
 16. 구난숙 : 대전지역 주부들의 한국발효식품 소비실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6, 714(1997)
 17. 이건설, 이승교 : 청소년이 있는 농촌가정의 수입식품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 465(1995)
 18. 한명주, 배은아 : 소비자들의 식품선택기준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인식도.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 299(1996)
 19. 한왕근, 이귀주 :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7, 23(1997)
 20. 김명숙 : 주부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불만족과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 *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2)
 21. 이호철, 유병규, 석태문 : 지역 유기농업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의 연구-경북지역 유기농가 81호에 대한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경상논집*, 21, 179(1993)
 22. Jolly, D. A., Schuttz, H. G., Diaz-Knauf, K. V. and Johal, J. : Organic foods-consumer attitudes and use. *Food Tech.*, 11, 60(1989)

(1998년 2월 4일 접수)